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참고자료** http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무역진흥과 김도균 과장(2110-4834), 정근용 사무관(2110-4835)

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기업에게 금융지원 강화키로

- 국제기구가 발행한 구매계약서(Purchase order)를 기초로 보증 및 대출 가능해져 -

- 아울러, 5.20일 14시, 코트라, 무보, 수은, 중진공 등 4개 기관이 국제기구 진출 유망기업 101개사 선정, 발대식 개최 -

□ **지식경제부**(장관 : **최중경**)는 코트라, 무역보험공사, 수출입은행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과 협력하여 **UN, World Bank, ADB** 등 **국제기구 조달시장**에 우리기업들의 진출을 크게 늘리기 위해 **금융, 컨설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**키로 하였음

○ 국제기구 조달시장은 약 **414억불 규모**이며, 세계 각지에서 국지적 분쟁과 자연재해 발생 증가 등으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음

<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 한국기업 현황('09년) >

기관명	조달금액	한국 참여실적	한국 참여율
UN산하기관 80개	138억불	4천6백만불	0.34%
국제개발은행 5개	276억불	8.2억불	2.96%
합계	414억불	8.66억불	2.1%

○ 그간 국제기구 조달계약은 일반무역거래와 달리 계약을 기초로 **금융지원들 도와주는 체계가 취약**해 조달시장 진출기업들이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어왔음

일반무역거래(B2B)	국제기구조달(B2G)
수출업체가 신용장(L/C) 개설, 추심(D/A) 거래 등을 통해 **은행**으로부터 **생산자금 및 수출대금** 융통 가능	국제기구의 **구매계약서**(Purchase Order, P/O)에 따라 **납품업체 스스로** 생산자금을 조달해 납품 후 대금 회수

-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, 무역보험공사, 수출입은행이 **구매계약서(P/O, Purchase Order)**를 기초로 융자·보증지원을 일부 제공하고 있었으나, **시중은행과 기보·신보 등은 금융지원을 하지 않았음**

○ **지식경제부**는 **금융위원회·중소기업청·한국은행**과 협력하여 국제기구가 발급한 **구매계약서(P/O)**를 기초로 한 **공공부문 금융지원**을 강화하고, **시중은행**도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하였음

-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금융지원을 종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- **중소기업진흥공단**은 올 하반기부터 P/O를 기초로 한 업체당 융자한도를 **'20억원'에서 '30억원'으로 상향** 조정키로 하였으며, **기보·신보**는 P/O를 기초로 **업체당 70억원까지 보증 지원**을 하기로 하였음

- **시중은행**도 P/O를 무역금융의 대상이 되는 **수출계약서로 취급**하도록 관련 규정*의 해석 및 적용을 명확히 하기로 하였음

* '한국은행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및 절차'

□ 아울러, **5.20일(금) 14시**, 코트라 국제회의장에서 코트라, 무역보험공사, 수출입은행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이 **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101개사를 선정**하여, **지식경제부 한진현 국장, 코트라 사장** 등이 참석한 가운데 **발대식**을 가졌음.

○ 정부와 4개 기관은 **약 9조 달러**에 이르는 **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반 마련**을 위해 우선 **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성공사례**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, 이번에 선정된 **101개사를 특별히 관리하면서 우대 지원**키로 하였음

< 4개 기관별 우대 지원내용 >

기관명	지원사항
KOTRA	■ 벤더 등록, 기업별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, 입찰서 작성 지원 ■ 조달관 접촉통한 홍보, 파트너발굴 등 현지지원
중소기업진흥공단	■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■ 벤더 등록, 입찰정보 제공, 입찰서 작성지원
무역보험공사	■ 중소기업 입찰/계약이행보증 한도 확대(2배) *정부결정 또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2배 초과지원
수출입은행	■ 수출자금대출 우대 지원

○ 지원대상 101개사는 이번 사업에 참가를 희망한 **200개사** 중 국제기구 조달수요 품목과의 일치 여부, 제품경쟁력 및 마케팅 역량, 재무건정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였음

< 선정기업 현황(1) : 기업유형별 >

기업유형	선정(개사)	비중
대기업	22	22%
중소기업	76	76%
기타	3	3%
합계	101	100%

< 선정기업 현황(2) : 기업유형별 >

업종	선정(개사)	비중	업종	선정(개사)	비중
기계	2	2.0%	운송용기기	4	4.0%
기타서비스	2	2.0%	의료/의약	15	14.9%
기타제조	15	14.9%	전기	7	6.9%
수처리	4	4.0%	전자	5	5.0%
에너지	7	6.9%	정보통신	15	14.9%
엔지니어링	18	17.8%	컨설팅	7	6.9%

○ 정부와 4개 지원기관은 101개사의 진출 성공을 적극 돕고, 2013년까지 집중 지원 대상기업을 **300개까지 늘려나갈 계획**임

○ 이번 유망기업 선정 및 우대지원 사업(P300프로젝트)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우리기업들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경험과 track record가 쌓여, 향후 약 9조 달러에 이르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. 끝.